

중소 건설업 - 창조경제 구현의 '침병' 역할 기대

권오현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ohkwon@cerik.re.kr

창조경제 추진 배경과 개념

지난 4월 중순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외신 보도들이 연이어 나왔다. 세계적인 컨설팅사인 맥킨지는 “한국 경제가 뜨거워지는 물 속의 개구리와 같다”고 했고, 포린폴리시는 “한강의 기적이 멈췄다”고 했다. 지난 50년 간 압축 성장을 이룬 한국 경제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선진 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을 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방향성은 일단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창조경제는 과거처럼 장시간 노동이나 비용 절감만으로는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은 외국에서도 지대하다. 최근 세계 경제가 실물 중심의 산업 경제에서 정보·지식 중심 지식 경제로 전환하면서 자연스럽게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는 것이다.

창조경제란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 기술에 기반한 경제 운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특히,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고용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 및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적 경제 체제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창조경제에 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정책 목적이나 관점에 따라 창조 산업의 범위 역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논자에 따라 다르지만, Hawkins 등과 같이 건축 분야를 대표적인 창조 산업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창조경제와 건설산업

건설산업은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의 지식과 경험이 어우러져 하나의 시설물을 생산해내는 종합 산업으로서 새로운 기술의 창조적 해석과 응용이 매우 중요한

특집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주요 창조 산업의 구성

영국 문화부	Hawkins	EU
광고	광고	시각 예술
건축	건축	공연 예술
미술품/공예품	미술	문화유산
공예	공예	영화 및 비디오
디자인	디자인	TV 및 라디오
패션 디자인	패션	비디오 게임
영화 및 비디오	영화	음악
쌍방향 오락 SW	비디오 게임	출판 및 서적
음악	음악	디자인
공연 예술	공연 예술	건축
출판	출판	광고
SW/컴퓨터 서비스	소프트웨어	
TV 및 라디오	TV 및 라디오	
	장난감과 게임	
	R&D	

출처 : 정병순 · 황정현, 「서울시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방안」, 서울시경제개발연구원, 2011.

산업이다. 특히,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 등 세계적 이슈와 관련하여 에너지 절약, 재해 예방, 환경 보호 등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창조적 해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디자인 등 심미적 요

소는 도시 경관 및 활력에 중요하며, 건설 활동은 미래에 전개될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상력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최근 건설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 발전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IT 분야의 기술 발전을 이용한 BIM,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에너지 이용 기준의 강화로 관련 기술의 빠른 발전을 비롯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모듈 공법 등 생산 방식의 변화 등 과거에 비해 기술 진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건축 분야의 경우, 공장 생산에 의한 모듈 공법의 확산, 생명공학 등을 응용한 생태 건축, 거푸집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 공법, 첨단 센서 등으로 보안 및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미래형 스마트홈 등 다양한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건설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 혁신

건설산업 주요 기술 혁신 분야

분야	촉진 요인	시장 특성	추가 혁신 사항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 지속 가능 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 -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 건설기업 이미지 개선	- 선진국 주도 시장 - 스마트 신도시 등 메가 프로젝트 - 사업 경험 빠르게 확산	- 조속한 경제성 개선 - 신기술·신소재 개발
기존 건물 리모델링	- 지속 가능 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 - 인구 구조 변화 - 에너지 절약 잠재력 최고	- 막대한 투자 규모 - 중소기업 비교 우위 - 틈새시장 전략 - 지역 시장 특성 - 버추얼 기업 등장	- 새로운 형태의 금융 조달 - 적정 공법 개발 필요 - 이주하지 않고 시공 필요 - 거주자 및 근로자들과 긴밀한 의사소통
스마트 홈	- ICT 분야의 기술 진보 (건설 기술과는 다소 거리)	- 대기업 중심으로 전기전자 분야에 대규모 투자 - 생활 지원 기술과 그린 스마트 기술이 중심	- 기술적 적용 가능성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
설계 및 의사결정 시스템	- 최종 사용자의 설계 및 시설 수준 결정에 참여 요구 - 향후 가변성 등의 확보	- 구미 선진국 주도 - 국내 IT 경쟁력 비교우위	- 참여 주체들의 상생 협력 - 오픈 이노베이션 - 데이터 보안 문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 IT 기술 획기적 발전 - 공장 생산 공법 발전	- 대기업 주도 시장 - 타 산업에서 응용 가능	- 가치 창출 목적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은 차별화 - 수익성의 확보
공장 생산 방식	- 현장 생산에 비해 고품질 - 공기 단축 및 공기 준수 - BIM 생산 방식 적용	- 구미 및 일본 주도 - 표준화 노력 필요	- 제품 표준화 - 모듈간 연계성 - 플러그 인 사용 - 냉난방 시스템

자료 : Schartinger, D., Sectoral Innovation Foresight Construction Sector, EU INNOVA, 2010.

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활동이 기대 이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끈다. 지난 100년 간 유럽에서 이루어진 건설 분야 전체 기술 혁신에서 중소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70%에 이르렀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작은 중소기업체들은 생존과 기업 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그 결과 기술 개발 등 혁신 활동에 더욱 노력한 결과로 해석된다.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정부는 창조경제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실현하겠다고 한다.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중소기업을 지목하는 것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창의적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청년 실업 및 중산층의 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용 없는 성장’ 및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대기업에 의한 수출 주도

형 성장 전략에 계속 의존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를 위해 정부는 기업 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한다.

건설산업에서도 중소기업의 역할은 막중하다. 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72%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 불황기에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 고용 창출자로서 역할이 크다. 또한 건설 시설물은 아름다운 디자인과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 경제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건축 등을 대표적인 창조산업의 하나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산업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데 있어 매우 적합한 산업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건설산업이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다. 주역을 맡아야 할 중소기업체들이 몹시 어려운 사업 환경에서 뚜렷한 경영 비전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

정부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 예산(2011년)

(단위 : 10억원, %, 건)

정부 부처	중소기업 관련 예산	중기청 예산 제외 비중	사업 수
중기청	5,976		88
지경부	1,812	48.1	45
농식품부	841	22.3	10
고용부	708	18.8	18
환경부	131	3.5	9
문화부	221	5.9	16
특허청	32	0.8	5
금융위	10	0.3	1
국토부	9	0.2	3
방사청	3	0.1	2
관세청	1	0.0	2
교과부	1	0.0	1
식약청	2	0.1	1
합계	9,747	100.0	201

자료 : 중소기업청, 2012년 중소기업 육성 시책

특집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다.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 규모는 계속 줄고, 적자 업체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적자 업체가 21%이고, 1년간 퇴출되는 업체가 22%에 달한다. 출혈 수주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량 중소기업마저 위협해질 수 있다. 창의와 혁신을 모색하기에는 너무나 박찬 환경이다. 더욱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체를 위한 정부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배제시키고 있으며, 지원 가능하더라도 그 내용이 건설업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어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건설업체는 1~2%에 그친다. 정부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 예산 중에서 국토부의 예산은 90억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0.2%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민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생산 비중이 5.3%이고, 전체 근로자의 7.2%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너무 인색한 수준이다.

중소 건설업 지원 활성화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제도를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원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지원 희망 분야 중에서 자금 지원이 43.2%로 최고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경영 컨설팅, 직원의 교육·훈련, 기술 개발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 건설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지원 프로그램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중기청

에서 지원하고 있는 新성장 기반 조성 자금을 비롯해, 경영 안정 및 사업 전환 자금 대상에 중소기업체들도 마땅히 포함시켜야 한다. 더 이상 산업 차별적인 지원 제도가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원하는 제조업 중심의 프로그램들은 건설업체에게는 적합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3개에 불과한데, 다른 부처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산업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의 발굴이 시급하다.

셋째, 중소기업을 지원할 총괄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영 자문 및 교육·훈련, 지원 성과의 평가 및 피드백 등을 위해서는 종합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 기구 등을 참조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설 관련 단체들은 중소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들을 정리해서 업체들에게 소상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들은 인력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관 기관 등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 역할이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업역간, 지역간에 끝없는 갈등을 초래한 발주·입찰 제도를 중심으로 심화된 제로섬식 보호에 더 이상 의존해서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건설업체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국토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 창조경제 구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창조적 모색이 절실하다. CERIK